

#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김수진	영문	KIM SUJIN
학과(전공)	에너지화학공학		학번	201**240
파견 학기	2017년 1학기		연락처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Heilbronn

❖ 경험보고서는 다음 파견 학생을 위해 A4 3페이지 이상 상세히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낯선 외국에서 혼자 잘해낼 수 있을까란 두려움과 설렘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영어 회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아닐까란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우선 합격을 한 후 하일브론 대학에서 이메일로 여러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사이트를 알려줄 것입니다.

처음해보는 것이라서 많이 서툴러 같이 가는 사람들과 모여서 쓰곤하였습니다.

그걸 통해 기숙사신청을 하고, 기다리다보면 학교측에서 미리 방을 구하라는 이메일이 옵니다. 결과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떨어질 것을 대비해 미리 알아보라며 각종 방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알려줍니다. 저는 그 때 몇십통씩 연락을 보내봤지만 6개월만 살 수 있는데도 많진 않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기숙사 발표가 났을 때 7명중 1명만 붙고 다 떨어졌습니다.

결과를 알게되자마자 바로 기숙사에 '내가 지금까지 몇십통을 보내면서 열심히 방을 구하려 노력했지만 연락이 안되거나 기간이 맞지 않아 구하지 못했다. 기숙사에 자리가 남으면 연락을 주세요'라는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간절함을 표한 타인지 다음 추가합격에서 먼저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한명만 더 추가되서 7명 중 3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하일브론 학교측에서 우리를 담당하는 버디가 방을 구하는데 도와줘서 혼자하는 것보단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 발급은 독일에 가서 학기 초에 교환학생들을 담당하는 독일학생이 교환학생들을 데리고 시청으로 가서 다 같이 비자발급을 하러갔었습니다. 발급하는데 50유로를 냈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지내기 위한 최소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이메일로 연락이 오면 독일계좌(block)를 만들 것입니다. 그 계좌에 돈을 넣어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6개월로 735유로씩해서 6\*735유로를 독일에 있을 때 부모님이 그 계좌로 넣어주셨습니다.

나중에 하일브론 학교 안에 있는 슈퍼카세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 때 카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한달에 한번씩 1개월치 735유로가 들어와 그 돈으로 생활하면 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미리 기숙사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보증금과 기숙사비를 미리 은행가서 돈을 보냈습니다 대략 700유로. 물론 기숙사 형태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돈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막스27이었는데 보증금은 400~450정도였고 기숙사가 300유로였습니다. 막스 27은 방2개 화장실1부엌1여서 가격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막스 31하고 캐네티 기숙사가 있는데 3~4명이 같이 쓰는 거라 가격이 낮았습니다.

항공권 같은 경우는 독일가기 2달 전쯤에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싸게 나왔을 때 빨리 결정해서 구입하는게 좋은데 기숙사가 될지 안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입시기가

더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찍 가서 머물 곳이 없다면 호스텔 같은 곳에 잠시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디가 자기 집을 초대해 미리 가있었습니다.  
수강신청은 한국에서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냈지만 독일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신청을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측에서 다시 새로 하나씩 알려주기 때문에 가기 전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하일브론 대학에 갔을 때 구미에 있는 우리 대학이랑 규모가 비슷한 것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않고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기숙사 27, 31과 걸어서 5분거리에 있고, 주위에 마트도 많습니다.

'알디','리들','에데카','디엠','네토' 등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쪽에 있는 네토 옆에 케밥집이 있는데 제 입맛에 너무 잘 맞고 맛있었습니다. 대략 4유로 정도 했습니다.

주로 물을 한국 물과 비슷하게 거부감이 안든 '리들'에 초록색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또한 에데카에 한국 쌀과 비슷한 아마 'milchreis'를 주로 사먹었습니다.

'알디'에서는 폰 유심칩을 가서 돈을 충전하는 식으로 썼었습니다.

또한 교통도 잘 되어있어 편합니다.

시청이 있는 시내까지는 10~20분정도 버스를 타면 도착합니다.

근처에 리들에서 더 들어가면 엄청 넓은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운동도 하고 바비큐도 해먹고 낮잠도 자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초반에 친구들과 같이 조깅을 하곤 했습니다.

####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 Deutsch als Fremdsprache 1(독일어)

독일어는 의무인 줄 알고 들었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 중 안 듣는 학생이 있는 것보니 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1년을 할 생각이시면 듣는게 좋겠죠!

교수님이 다 다르고, 처음에 레벨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저절로 반 배정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관련 내용을 배웁니다. 또한, 앞에 나와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해 발표도 하였습니다.

저희 교수님은 매일 숙제를 내고 2주에 한번정도씩 시험을 쳐서 성적에 반영이 되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독일어 수업이 가장 재밌고 유익했던 수업이었습니다.

- Deutsch als Fremdsprache, e-Learning

독일어 수업에서 e-Learning 할 사람은 명단에 이메일을 적어 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기간 쯤에 이러닝 시험을 알려주는데 그 전까지는 동영상도 안보고 오히려 독일어 수업에만 더 집중하다가 시험 한 번 더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안에만 여러번 시험을 다시 쳐도 됐었습니다.

- English for Business Studies 1

주로 한국인학생들이나 다른 아시아계열 학생들이 많이 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자유롭게 말하기도하고, 영어 문법을 영어로 배우기도하고, 에티켓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밖에 없어 부담이 없는 수업이었습니다.

- Principles International Management

인텐시브 과목이라고 6개월간 정기적으로 수업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나가는 수업이었습니다. 일주일가량 팀으로 경영 관련 발표를 해서 점수가 주어지는 수업이었습니다.

경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고, 팀끼리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 필요한 것들을 직접 찾아보고 상의한 후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꽤 신선하고 새로웠습니다.

물론 전공과목이 아니라 낯선 용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동안 힘들겠지만 짧은 시간안에 끝낼 수 있으니 시간적 활용에 좋은 과목 같습니다.

#### - Global Leadership

이것도 인텐시브 과목으로 교수님이 알려주는 주제를 선택해 팀으로 관련 자료를 찾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논리적으로 정리해 발표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외국인들은 어떤식으로 발표를 하는지 알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막스 27은 룸메이트가 1명입니다. 룸메이트는 랜덤이라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27은 아마 같은 성별로 이루어질 것이고, 나머지 기숙사는 남녀혼성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기숙사비는 처음에 독일 오기 전에 보증금+기숙사 비를 미리 내면 그 후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300유로씩 빠져나갑니다.

외식을 하는 것은 비싸기 때문에 주로 마트에서 장을 봐서 기숙사에서 해먹었습니다.

식자재가 생각보다 싸고 고기가 한국보다 싸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많이 사먹었습니다.

룸메이트와 나의 식기구는 서로 공유해서 같이 썼었습니다.

화장실은 건식이기 때문에 커튼으로 가려서 샤워를 하는 형식이고, 저와 제 룸메이트 경우에는 슬리퍼를 사서 슬리퍼를 신고 다녔습니다. 보통은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갑니다.

기숙사에는 침대, 책상, 옷장, 책장이 있고, 혼자 살기에 넉넉하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전등이 노란불이라서 불편한 분은 스탠드를 가져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만 불편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괜찮았습니다.

독일은 습기가 별로 없어서 여름에도 방에만 있어도 시원합니다.

독일에 와서 쇼핑을 많이 하게 될지 몰랐는데, 옷 같은 경우는 많이 가져오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짐이 많아지면 한국 돌아올 때 택배로 보내야하거나 버려야할 경우가 생깁니다.

####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오기 전에 한 명씩 독일 하일브론 학생 버디를 만들어줍니다.

버디와 연락을 꾸준히 하면서 정보도 얻고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입니다.

초반에 교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담당해주는 독일학생이 학교 안을 소개시켜주고, 다같이 하이델베르크나 BMW박물관, 슈트트가르트에 다 같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주의깊게 평소에 잘 보셔야하는데 웬만한 내용은 이메일로 연락이 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과끼리 바비큐 파티를 하거나 각자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소개하는 것, 마라톤 등 여러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메스터 티켓이라고 초반에 만들게 되는데 그걸 소지하고 있으면 버스, 트램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버스에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걸리면 몇 배를 내야하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동아리는 안들었습니다. '멘자'라고 학교 식당이 있는데 독일음식이 한국 음식과는 다르게 많이 짜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지는 않았고, 식당이 넓어서 공부하러 가곤 하였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를 하곤합니다. 한국과는 달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길을 가다보면 인종차별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일브론이 작은 도시라서 아시아인들이 적은 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식을 만들면 생각보다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들과 연락하려고 노력해야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다른 나라 여행계획도 세워보고, 주위를 많이 돌아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한 상태로 오면 간단하게 일상대화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은 기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바란다면 한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가서 써먹는 것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많은 추억들을 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